

이케다호수의 신비한 생물과 형형색색의 코스모스

이케다호수는 규슈에서 가장 큰 칼데라호입니다. 깊은 물 속에는 보호종인 거대 뱀장어와 전설에 따르면 이시라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

이 호수는 약 5,700년 전 일련의 화산 분출로 형성되었습니다. 이 분출로 인해 형성된 분화구는 담수로 채워져 둘레 약 15km, 최대 깊이 233m에 이르는 호수가 되었습니다. 지역 설화에 따르면,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케다호수에 사는 용신 이야기는 18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. 1900년대 중반에는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검은색 생물이 호수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. 이 생물은 스코틀랜드 네스호의 유명한 괴물, 네시를 참고하여 이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

용이나 뱀 등 이시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, 이케다호수에는 부인할 수 없는 괴물, 바로 무태장어(*Anguilla marmorata*)가 서식하고 있습니다. 이 열대성 뱀장어는 길이가 최대 1.8m, 무게는 2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. 일본에서 가장 큰 뱀장어 종으로, 이부스키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이케다호수는 수상 스포츠, 조깅, 사이클링 같은 야외 활동이나 괴생물 애호가들에게는 괴물 사냥을 즐길 수 있는 인기 장소입니다. 호숫가에는 코스모스, 양귀비, 팬지, 해바라기, 베고니아와 같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일년 내내 피어납니다. 1월에는 식물학자와 사진가들이 이케다호수 주변을 노란 융단처럼 덮는 유채꽃밭을 보기 위해 이부스키로 모여듭니다.